

STORY 일본 기자의 '일본 뚫어보기'

‘고독한 미식가’ 나왔다고 日식당은 자랑 안한다



나리카와 아야 전 아사신문 기자

한국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일본 TV 프로그램은 아마도 '고독한 미식가'가 아닐까. 나를 처음 만났는데도 내가 일본사람인 줄 알자 '고독한 미식가 보고 있어요.'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내가 출연하는 것도 아닌데 '일본'이라고 하면 바로 고독한 미식가가 떠오르는가 보다. 전혀 일본어를 못하면서도 "우마이(맛있다)"라고 주인공 이노가사리 고로(井之頭五?)의 말투를 흉내 내는 사람도 많이 봤다.

사실 고독한 미식가는 일본에서는 그렇게까지 인기가 높은 드라마는 아니다. 나도 일본에 있을 때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정도였는데 한국에서 와서 거의 매일같이 케이블 방송에서 하는 걸 보고 팬이 됐다. "한국에서 인기가 엄청나다"고 하면 일본 친구들은 "왜?" 하고 하나같이 놀란다.

"한국서 엄청 인기"에 일본 친구들 "왜?" 고로가 일 때문에 어딘가에 갔다가 그 근처에서 혼자 밥을 먹는 단순한 스토리를 가진 이 드라마가 이렇게까지 한국에서 인기를 끄는 이유 중 하나는 일본 음식에 대한 높은 관심 때문일 것이다. 드라마 속에서 고로가 먹는 곳이 실제로 있는 가게라는 것도 큰 것 같다. 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한국사람은 714만 명에 이르렀다. 물론 다른 관광 목적도 있었지만 가장 관심이 많은 것은 일본 음식인 것 같다.

한국과 일본을 왔다 갔다 하는 나도 지난해부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고독한 미식가에 소개된 가게를 찾아가곤 하고 있다. 나뿐만 아니라 고독한 미식가 투어를 하며 블로그에 글을 올리는 한국사람들이 꽤 많다.

최근에 찾아가본 곳은 일본이 아닌 한국 전주다. 전주국제영화제 때문에 전주에 간기에 시즌7에 등장한 '토방'이라는 가게를 찾아갔다. 식당 안에는 고로를 연기하는 마츠시게 유타카(松重豊)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날짜를 보니 2018년 5월 10일. 지난해에도 영화제 때문에 그날 전주에 있었는데 마츠시게를 못 봤다니 아쉽다.

여담이지만 일본에서 길을 가다가 우연히 고독한 미식가를 촬영 중인 마츠시게를 본 적이 있다. 오사카 우라기 근처 오코노미야키(お好み焼き)집이었다. 늘 TV에서 보던 얼굴인데 집 근처에서 봐서 아는 사람인 줄 착각하고 "곤니찌와(안녕하세요)"라고 해 버렸다. 그런 일이 자주 있는지 마츠시게도 "곤니찌와!" 하고 웃어 줬다. TV에서 봤던 대로 씩씩한 사람인 것 같다.

전주 토방 이야기로 돌아가자. 마츠시게가 고독한 미식가 촬영 때문에 한국에 왔다는 것은 그 당시 뉴스를 통해 알았다. 어디서 먹었는지 친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유명한 일본 배우가 한국에 와서 이렇게까지 반응이 뜨겁지 않은데, 한국에서의 대단한 인기에도 마츠시게 본인이 가장 놀라지 않았을까 싶다.

고로가 토방에서 먹은 것은 '셀프 비빔밥'이라고 소개됐다. 그런데 실제 메뉴는 가정식 백반이었다. 일본에서는 밥에 반찬이나 국물을 섞어 먹는 문화는 별로 없기 때문에 신선했던 모양이다. 자기만의 비빔밥을 만들며 즐기는 모습이 방송됐다.

나는 한국 음식을 사랑하지만 흰밥만큼은 일본이 더 맛있는 것 같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김치가 있고 반찬과 국물을 같이 먹기 때문에 흰밥만 먹는 경우가 별로 없어서 흰밥 맛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일본은 흰밥 자체의 맛을 추구하는 편이다.

내가 신문 기자로 2년 동안 근무했던 도야마(富山)는 흰밥이 감동적으로 맛있었다. 쌀이 맛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물이 맛있어서였다. 도야마의 수돗물은 국제적인 품질 공구에서 상을 받을 정도로 그 맛을 인정받고 있다. 맛의 비결은 산이다. 도야마에는 다테야마 연봉(立山連峰)이라는 3000m급 산들이 즐비해 있다. 일본에서 가장 많이 눈이 내리는 지역이기



1 '고독한 미식가' 시즌1에 나왔던 도쿄의 돈가스집 미야코야. 2 미야코야에서 맛볼 수 있는 굴튀김. 3 시즌7에 방영된 전주 '토방'의 가정식 백반. 4 토방에 걸려 있는 기념사진. 5 '고독한 미식가'의 주인공 마츠시게 유타카.

한국서 더 인기 있는 일본 먹방 주인공 말투 흉내 내기도 유명

전주 '토방' 찾아 가정식백반 다뤄

공짜로 주는 갖가지 반찬 인상적

일본 촬영지 서민적 가게 많지만

방송출연 홍보 대신 맛으로 승부

도 하다. 높이 20m나 되는 거대한 눈의 벽은 '눈의 대곡(雪の大谷)'이라고 불리며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은 관광지다. 엄청난 양의 눈이 도야마의 수원이자, 쌀과 물이 맛있다는 것은 사계가 맛있다는 것이기도 하다. 거기다가 해산물도 정말 맛있다. 도야마의 해산물은 일본에서 가장 맛있는 것 같다. 나만 그런 게 아니다. 전국에 전근을 다니는 일본 신문기자들의 평가다. 저렴한 회전스시도 도쿄나 오사카의 고급 스시집보다 훨씬 맛있다. 이야기가 잠시 빗나갔지만 일본 음식 이야기 하는 데 도야마를 빼놓을 수는 없다. 한국에서 음식 대표선수인 전주라고 하지만 일본은 도야마다.

당당하게 혼밥 즐기는 모습에 동경심 한국의 고독한 미식가 팬들은 잘 먹는 고로를 보는 것을 좋아한다고 한다. 고로 혼자서 여러 메뉴를 주문해서 하나씩 음미하며 먹는다. 한글을 못 읽는 고로는 토방에서는 일단 가장 저렴한 메뉴를 시키고 그다음에 추가할 생각이었지만 결국 가정식 백반만 먹고 끝났다. 잘못 주문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정도로 많은 반찬이 나왔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놀러 오는 친구들도 한국의 다양한 반찬에 감동한다. "이게 다 공짜냐?"며 정선없이 먹는 모습은 몇 번 봐도 흐뭇하다. 나도 토방에서 고로와 같이 나만의 비빔밥을 만들고 정국장도 같이 섞어서 한국다운 음식 문화를 즐겼다.

그런데 수많은 일본 먹방 프로그램 중에서 고독한 미식가가 특별히 인기가 많은 이유는 뭘까. 그 답은 '고독'에 있는 것 아닐까 싶다. 고로가 전주로 출장 갈 때는 서울에서 직원도 동행했다. 한국에서는 출장을 같이 갈 경우 밥을 따로 먹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고독한 미식가는 혼자 먹는 것이 콘셉트인 드러마인 만큼 고로는 전주에서도 혼자 셀프 비빔밥을 즐겼다. 한국에서도 요즘은 '혼밥'이라고 혼자 밥을 먹는 문화가 정착된 듯하다. 그런데 실제로는 혼자 밖에서 밥을 먹는 것이 약간 어색하다는 사람도 있다. 일본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혼자 밥을 먹는 일본사람도 한국에서는 주변 시선 때문에 불편하다고 한다.

그래서 아주 당당하게 혼자 밥을 먹는 것을 즐기는 고로의 모습에 동경심을 느끼는 것 아닐까. 실제로 일본에서는 혼자 밥을 먹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오히려 같이 먹고 싶어도 쉽게 말을 못 꺼내는 사람이 더 많을 것이다. 나는 같이 먹는 한국 음식 문화를 좋아하지만 혼자 먹어도 편한 일본이 그리울 때도 있다.

고독한 미식가에 나오는 가게는 대부분 도쿄에 있다. 요즘 도쿄에 갈 때마다 찾아다니는데 그중에서 특별히 맛있었던 가게는 시즌1에 나왔던 돈가스집 미야코야(みやこや)다. 사기노미야(鷹ノ高)역 근처에 있는 가게에 들어가 보니 손님 대부분 근처에 사는 사람 같았다. 고독한 미식가에 나오는 가게는 그런 서민적인 가게가 많다. 그래서 관광객이 아닌 일본의 일상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재미도 있을 것이다. 여기서 내가 주문한 건 굴튀김(カキフライ). 그리고 보니 한국에서 굴전은 많이 먹지만 굴튀김은 먹어 본 적이 없다. 한국말로 튀김이라고 하는 음식은 일본에서는 전혀 다른 두 가지 음식이다. 하나는 프라이(フライ), 하나는 덴뿌라(天ぷら)다. 여기서 먹은 굴튀김은 프라이다. 일본에선 빵가루를 묻혀서 튀기는 프라이는 양식이고, 밀가루를 묻혀서 튀기는 덴뿌라는 일식으로 전혀 다른 요리다. 그래서 일본사람은 한국에서 돈가스가 일식으로 분류된 것을 보고 고개를 갸우뚱거린다. 일본에서는 양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여튼 일본에서는 굴튀김을 자주 먹는다. 바삭한 튀김 옷 안에 juicy 많은 굴. 한국에서도 인기 있을 만한데 왜 안 팔까. 오랜만에 먹어서 그런지 너무 맛있고 행복했다. 고로가 여기서 먹은 돈가스와 치킨가스가 같이 나오는 믹스가스 정식. 거기다가 돼지고기를 마늘 소스로 구운 로스마늘구이를 추가로 시켜 먹었다. 정말 잘 먹는다.

고독한 미식가에 나온 가게들을 다니면서 느낀 것인데 방송에 나왔다는 것을 주장하지 않는 가게가 많았다. 사인 정도는 있어도 따로 눈에 들어오는 건 없는 가게가 대부분이다. 반대로 한국에서는 방송 출연을 하면 큰 간판을 만들어서 손님들에게 어필하는 경우가 많다. 방송에 나왔으니가 맛있겠다 하고 가는 건 맞는데 그것을 주장하지 않는 가게가 더 맛으로 승부하는 것처럼 느끼는 것은 일반적인 감각인 것일까. 나처럼 고독한 미식가 투어를 하는 한국사람들은 어떤 것을 느끼면서 다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다.

고독한 미식가에 나온 가게들을 다니면서 느낀 것인데 방송에 나왔다는 것을 주장하지 않는 가게가 많았다. 사인 정도는 있어도 따로 눈에 들어오는 건 없는 가게가 대부분이다. 반대로 한국에서는 방송 출연을 하면 큰 간판을 만들어서 손님들에게 어필하는 경우가 많다. 방송에 나왔으니가 맛있겠다 하고 가는 건 맞는데 그것을 주장하지 않는 가게가 더 맛으로 승부하는 것처럼 느끼는 것은 일반적인 감각인 것일까. 나처럼 고독한 미식가 투어를 하는 한국사람들은 어떤 것을 느끼면서 다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다.

고독한 미식가에 나온 가게들을 다니면서 느낀 것인데 방송에 나왔다는 것을 주장하지 않는 가게가 많았다. 사인 정도는 있어도 따로 눈에 들어오는 건 없는 가게가 대부분이다. 반대로 한국에서는 방송 출연을 하면 큰 간판을 만들어서 손님들에게 어필하는 경우가 많다. 방송에 나왔으니가 맛있겠다 하고 가는 건 맞는데 그것을 주장하지 않는 가게가 더 맛으로 승부하는 것처럼 느끼는 것은 일반적인 감각인 것일까. 나처럼 고독한 미식가 투어를 하는 한국사람들은 어떤 것을 느끼면서 다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다.

고독한 미식가에 나온 가게들을 다니면서 느낀 것인데 방송에 나왔다는 것을 주장하지 않는 가게가 많았다. 사인 정도는 있어도 따로 눈에 들어오는 건 없는 가게가 대부분이다. 반대로 한국에서는 방송 출연을 하면 큰 간판을 만들어서 손님들에게 어필하는 경우가 많다. 방송에 나왔으니가 맛있겠다 하고 가는 건 맞는데 그것을 주장하지 않는 가게가 더 맛으로 승부하는 것처럼 느끼는 것은 일반적인 감각인 것일까. 나처럼 고독한 미식가 투어를 하는 한국사람들은 어떤 것을 느끼면서 다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다.



박종구의 중국 인물 이야기



〈초당대총장〉

〈187〉 석경당

석경당(892-942)은 사타족 출신으로 오대십국 시대 후진을 건국한 인물이다. 산서성 태원의 사타족 출신으로 부친 석소용은 이극용을 정벌한 공으로 허베이성 명주자사로 임명되었다. 어린 시절 이사원에게 인정받아 그의 사위가 되었다. 부친이 석씨 성을 쓰게 된 유래는 분명치 않다. 926년 위주 방위를 맡았고 장인과 함께 후당의 장수를 토벌하는 반군에 가담했다. 이사원이 명종으로 즉위하자 보의, 선무, 하동절도사를 역임하였다. 명종이 죽자 933년 삼남인 이종후가 명제로 즉위했다. 그러나 934년 봉상절도사 이종후가 명제로 즉위했다. 그러나 934년 봉상절도사 이종후가 명제로 즉위했다. 그러나 934년 봉상절도사 이종후가 명제로 즉위했다.

풍모, 견식과 도량을 보니 참으로 중원의 주인이다. 너를 천자로 세우고자 한다"고 권해 황제로 즉위시켰다. 약제정권의 한계로 매년 30만 필의 비단을 국호를 요로 바꾼 거란에 바쳤다. 연은 16주도 요나라에 할양했다. 현재의 베이징 주변에 영토를 넘긴 것이다. 상유한은 황제에게 "정성을 들이고 번진을 달래며 거란을 받들고, 병졸을 훈련시키고, 농업과 양잠을 힘써서 창고를 충실히 하며 상거래를 축진해 재물을 풍족하게 할 것"을 건의했다. 왕조가 조금씩 안정을 찾았다. 도읍을 개봉으로 천도한 것도 상유한의 의견을 따른 것이다. 북쪽으로는 연과 통하고 남쪽으로는 장강과 회수와 통하므로 물자가 풍부하다는 이유였다. 여러 신하들이 출병해 북방의 옛 강토를 회복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그는 말하기를 "나는 어려서부터 군대에서

사타족 출신, 오대십국 시대 후진 건국

말제가 두려워한 것은 석경당이였다. 그를 태평절도사로 옮기기로 하였다. 근거지인 태원에서 때어놓기 위한 계략이었다. 석경당은 참모들과 향후 대책을 논의하였다. 그는 말하기를 "주상께서 죽을 때까지 태원에서 옮기지 않도록 약속하였는데 지금 갑자기 이런 명령을 내렸다. 내가 난을 일으키지 않으면 조정에서 출병할 것이니, 어찌 속수무책으로 길에서 죽겠는가?" 장서기 상유한이 거란족에게 원군을 요청할 것을 건의했다. 그는 말하기를 "거란이 가까이 운주와 응주에 있으니 정성을 들이고 절의를 굳혀 섬기십시오. 만일 위급한 일이 있으면, 아침에 부르던 저녁에 올 것이니, 어찌 성공할 것을 근심하십시오?" 석경당은 지원의 대가로 거란의 수장을 부친으로 자신을 신으로 칭하겠다고 약속했다. 노룡 1개 도와 안문관 이북의 여러 지방을 할양하겠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거란은 크게 기뻐하며 조만간 달려가 구원하겠다고 허락했다. 거란은 5만군을 남하시켜 진양을 공격하고 낙양으로 쳐들어갔다. 후당의 말제는 현무루에 올라가 불에 타죽었다. 황후와 황태후도 뒤따랐다.

자랐다. 전쟁에서 백성이 겪은 피해는 차마 말로 하지 못할 정도다. 저들의 백성이 편안하면, 우리 백성 또한 편안할 것이니 무엇을 마다하겠는가?" 요나라에 대한 외교를 놓고 조정이 갈렸다. 성덕절도사 안중영은 오랑캐에게 아첨하는 것을 배척하는 내용의 강경한 상소를 올렸다. 상유한은 비밀 상소에서 말하기를 "폐하께서는 군사에게서, 백성을 쉬게 하고, 나라 안에 걱정이 없고, 백성에게 여력이 생기를 기다린 연후에, 틈을 살펴서 움직인다면, 반드시 뜻을 이룰 것입니다." 황제는 신중하게 움직이지 않았다.

942년 석경당이 죽었다. 풍도와 경연장이 논의해 국가에 어려움이 많으니 마땅히 장자를 세울 것을 주장했다. 아들 석중에 대신 제왕 석중기가 제위에 올랐다. 이로써 경연관이 권력을 잡았다. 그는 대요 강경론을 주장했다. 요에 보낸 서한에서 신이라 칭하지 않았다. 요는 비난하는 서한을 보내왔다. 강운론이 대답하는 가운데 이승은 "몸을 굽히는 것은 사직을 위함이다. 무슨 치욕이 있겠는가."라고 주장했다. 946년 요는 남하해 국도 개봉을 함락시켰다. 요의 황제 야율덕광은 석중기를 포로로 삼고 각지에서 약탈을 자행했다. 건국 11년만에 후진은 멸망했다.

北과 협상재개 적극성 띠는 美 "대화 당장 시작할 준비돼 있다"

폼페이오, 강한 대화 메시지 김정은, 트럼프 친서 만족감

미국이 북미협상 교착 타개에 한층 적극성을 보이며 북한에 빨리 대화를 재개하자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친서로 화답한 데 이어 북미협상을 총괄해온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른 시일 내 실무협상 재개에 대한 상당한 기대감을 표명하며 강한 대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담판을 앞두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개입폭을 키우려 하는 와중에 북미 양자의 대화를 가급적 빨리 본래 궤도로 되돌려 협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준다면 "말 그대로 당장 대화를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북미 실무협상 재개 가능성에 상당한 무게를 둔 발언으로 보인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한국시간으로 이날 오전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에 만족을 표시했다면서 "흥미로운 내용을 심층히(깊고 중요하게) 생각해 볼 것"이라는 김 위원장의 발언을 전한 바 있다. 미국이 말 그대로 당장 대화를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는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 역시 미국이 북미 실무협상 재개에 한층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폼페이오 장관은 23일(현지시간) "(친서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북한과 중요한 논의를 이어가는 데 좋은 토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북미 실무협상이 곧 재개되는지에 대해서도 "오늘 아침 북한에서 나온 발언을 보면 아마도 꽤 높은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북한이 준비됐음을 보여

백악관도 이날 오전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공식 확인하면서 북미 정상과의 연락이 계속 진행돼 왔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과 이후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을 통한 대미압박에도 대화의 문을 열어두기는 했으나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친서 교환을 계기로 협상 궤도로의 재진입에 더욱 강한 의지를 피력하는 셈이다. /연합뉴스

